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명: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ACN 스페셜 리포트: 시리아, 알레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시/리/아 알레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알레포 지브린(Jibrin) 지구의 난민 센터에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시리아 아이들.
큰 타격을 입은 알레포 동부 지역 주민 수천 가구는 휴전 이후 이곳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ACN 영국지부의 존 폰티팩스 홍보팀장이 시리아 알레포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폭탄이 끊임없이 폭발한 도시 알레포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가족 여러분께서 식량, 의약품, 의복 등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알레포 주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연민, 헌신과 기도는 세계 최악의 인류적 재앙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한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ACN 방문단은 휴전이 선포되고 이행된 지 2주 만에 알레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알레포의 전투가 마침내 끝을 보인 것입니다.

ACN은 대피소와 무너진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연민과 자비로, 먹을 것과 피신할 곳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 중단, 심각한 수준의 실직자 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레포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비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ACN의 오랜 협력자이신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님(예수 마리아 수녀회)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르키스(Sarkis) 씨와 그의 부인, 애니(Annie) 씨를 만났습니다.

알레포에서는 노부부의 생존과 신앙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르키스 부부는 ACN 방문단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ACN은 2016년에만 20만 명 이상의 시리아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ACN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지속된 시리아 전쟁은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으로, ACN은 알레포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알레포를 떠날 수 없었던 그들은 시리아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와 시리아를 떠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ACN이 그 길을 함께 준비해갈 것입니다.

“다에시(IS)가 저를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ACN 방문단이 알레포에 도착하자, ACN의 프로젝트 파트너인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님께서 부부 한 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스(Elias) 씨와 그의 부인, 사마르(Samar) 씨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다에시(IS)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부의 고향은 시리아 북부 도시, 락카(Raqqah)입니다. 락카는 다에시에게 점령당했고, 자칭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무리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즈야(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엘리야스 부부는 지즈야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에시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쓰레기통에 파티마의 성모상을 집어 던졌고, 들고 있던 총의 개머리판으로 엘리야스 씨의 머리를 가격하며 그를 카피르(이교도)라고 부르며 죽어도 마땅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야스 씨는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절망한 채로 반격했습니다. 다에시 관계자를 때리고 만 것입니다.

다에시는 엘리야스 씨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어 한 달 뒤에 참수하는 끔찍한 보복을 가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야스 씨는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엘리야스 씨는 폭격기의 공습으로 폭탄이 떨어져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스 씨는 부인, 사마르 씨와 극적으로 재회했고 한 유랑자가 부부를 화물차 안에 숨겨 알레포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엘리야스 부부는 알레포에서 보금자리, 식량, 의복, 의약품, 난방, 물과 전기 등 필요한 물자를 모두 제공받고 있습니다. 애니 수녀님의 용기와 ACN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엘리야스 부부에게는 사실 리마(18세)와 요한나(17세)라는 두 딸이 있습니다. 다에시가 딸들을 납치해 버려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리마와 요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야스 부부는 혹여 두 딸에게 해를 입

힐까 염려하여 온 가족의 이름을 가명으로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도 물론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악에서부터 구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넘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 다에시는 성전에 불을 질렀고,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미지의 장소를 향한 여정

“알레포에 간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사진: 알레포 구시가지의 잔해 속에 선 ACN 영국지부의 존 폰티팩스 홍보팀장 (안제이 할렘바 신부님 제공)

황폐해진 도심의 길거리를 따라 늘어선 건물들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폭격을 입은 건물들은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파괴의 흔적과 건물 잔해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ACN 방문단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큰 성과였습니다. 알레포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는 다에시(IS)의 점령지 안에 속한 탓에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먼 길을 돌아 검문소를 하나씩 통과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다다르자, ACN의 시리아 프로젝트 협력자이신 지아드 힐랄

신부님(예수회)께서 사제관 벽에 생긴 큰 구멍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로켓이 콘크리트 접합 부분에 떨어졌어요. 벽이 단단한 부분이었죠.”

힐랄 신부님께서는 박격포가 벽에서 튕겨나가서 땅에 떨어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제관 밖 길바닥에서 마맛자국처럼 생겨난 탄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비한 운명이야말로 ACN이 알레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최전방까지 전해지는 사랑

알레포 동부와 서부 지역 사이의 최전방이 바로 애니(Annie) 씨와 사르키스(Sarkis) 씨가 사는 곳입니다.

노부부의 집은 알레포 미단 지구의 4층 아파트입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는 욕실로

들어가 피하거나 심지어는 계단 밑에서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올해로 77세인 사르키스 씨는 전직 포클레인 조종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른 나이에 퇴직하여 그의 부인과 함께 외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합니다. 애니 데메르지안(Annie Demerjian) 수녀님께서 이끄시는 자원봉사단이 노부부를 보살핍니다.

25세의 청년 여성 자원봉사자 비비안(Vivian) 씨는 알레포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비안 씨는 매번 목숨을 걸고 사르키스 부부에게 식량 교환권, 의약품, 의복, 전기료 등을 전달합니다.

사르키스 씨의 부인, 애니(62세) 씨는 말

합니다. “비비안은 정말 놀라운 청년이죠. 비비안도 그렇고 ACN 여러분도 상을 받아 마땅해요.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기적과도 같아요. 저는 매일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도와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부부는 또한 서로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사실 사르키스 씨와 애니 씨가 만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부부는 전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결혼했습니다.

사르키스 부부와 같은 알레포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ACN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레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ACN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미소 짓는 요셉 대주교님

젊은 목자의 양 떼는 외부의 지원 없이 살아남기가 힘들고, 성전의 지붕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지만, 요셉 톱지(Joseph Tobji) 대주교님께서서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미소 짓는 대주교님의 모습만 본 사람들은 대주교님께 닦았던 시련을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 대주교님의 형제 주교들인 알레포의 시리아 정교회 요한나 이브라힘(Yohanna Ibrahim) 대주교님과 그리스 정교회 볼로스 야지기(Boulos Yazigi) 대주교님께서 2013년 초에 납치를 당하시어 현재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45세이신 요셉 대주교님께서 사목하시는 알레포의 마론파 가톨릭 신자들은 그 수가 현저히 줄어, 대부분 집도 직장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은 알레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서 깊은 도시

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대주교님께서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시리아에 남아 사람들을 돌보며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ACN은 시리아 곳곳으로 미사 예물을 전달하며 시리아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은 ACN의 긴급 구호와 사목 지원 활동에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없고 어떤 때는 빵이 없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아 이곳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서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던 폭탄 폭발의 공포와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한 아이들을 땅에 묻었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가끔은 울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웃음과 함께 보냅니다. 이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웃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 고통을 극복하며 미소짓는 요셉 톱지 대주교님 (마론파 가톨릭 교회 알레포 대교구장)

폭격을 입고 파괴된 알레포 구시가지 내 마로니트 대성당 ▼





알레포 지브린 지구의 난민 센터에서 식사 배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알레포 동부 출신 난민들이 이곳의 도움을 받습니다.



(좌측부터) 부인 마리아나, 딸 크리스타와 바질 슈피 씨
ACN은 슈피 가족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가톨릭 가정을 지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ACN은 다른 구호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알레포 도처에서 배급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합니다.

배급 센터는 각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할당량을 준수하여 물품을 지급합니다.

형편이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다른 가정의 경우,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장된 음식을 배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아지자(Aziza) 지역의 센터에서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5만 명입니다. 사람들은 조달된 식량으로 6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이곳에서 식량을 배급받는 바실 슈피(Basil Syoufi) 씨는 22세로, 그의 부인인 마리아나(Mariana, 27세) 씨와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크리스타(Christa)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타는 슈피 부부의 삶을 밝혀 주는 빛입니다.

슈피 씨 가족에게 생존이라는 과제는 더욱 무겁습니다. 가장인 슈피 씨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피 씨 가족은 닭고기 교환권을 포함한 식량 꾸러미, 난방용 기름과 전기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슈피 씨 가족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것은 전기료 지원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터무니없이 비

싸기 때문입니다. 전구 2개와 텔레비전을 10시간 동안 트는 데 현지 평균 월급의 3분의 1에 맞먹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저희 가족이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폭탄이 떨어지고 집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저희는 그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ACN의 시리아 지원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은 아래 상기된 프로젝트 및 비슷한 성격의 지원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ACN은 바티칸으로부터 집을 비롯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 알레포 동부 출신 가정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ACN은 알레포와 시리아 전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알레포·하사카:** 난민 가정 1,300가구에 난방용 연료·가스·기름·전기 및 6개월 어치의 임대료 지원 (가구당 20여만 원)

◆ **알레포:** 6개월 동안 700가구에 식량·거처·난방 지원, 알레포 그리스도인 청년 자원봉사단이 배급 (가구당 5만 원)

◆ **알레포:** 아르메니아 가톨릭 신자들의 주택 수리 지원 (가구당 80만 원)

◆ **라타키아:** 650명의 영유아에게 6개월 동안 분유 및 기저귀 지급 (가구당 20여만 원)

◆ **홀스:**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 ‘바이트 알 아말’(Bait Al Amal)의 재건 및 여학생들을 위한 건물 건설 (약 2,700만 원)

◆ **홀스:** 학생들의 교육 지원 (약 2억 원) 및 겨울철 3개월 동안 135가구에 난방용 연료 지급 (가구당 8만 원)

◆ **시리아:** 6개월 어치의 의약품과 간단한 수술 지원 (시리아 전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 **레바논:** 시리아 난민 가정 600가구에 식량 및 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구호 활동 (가구당 6만 원)

